

연구논문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이용한 연령집단별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Age Integration using HLM

김미리^{a)} · 정순돌^{b)}

Miri Kim · Soondool Chung

본 연구는 개인이 지각한 가족결속도와 지역사회 고령친화환경 조성도 및 지역사회
의 고령인구비율과 지역크기가 개인의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령집단별
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통합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청년층 294명, 중년층 357명, 노년층 353명을 포함한
총 1,004명이며, SSK(Social Sciences Korea) 사업단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자료분석은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에서 청년층은 월평균 소득이
높고, 가족과 애정적 결속도가 높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생각할
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중년층은 가족과 접촉을 적게 할수록, 가족과
애정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고령친화적이라고 인식
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느낄수록, 가족과 접촉을 적게 할수록, 그리고 가족과 서로 도움을 많이 교환하는
기능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지역 수준에서는 중년층의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 하에 진행된 SSK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석사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NRF-2016-S1A3A2924582).

a)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순돌.

E-mail: sdchung@ewha.ac.kr

경우에만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곳에 거주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분석을 통해 연령통합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관계 향상과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족결속도, 고령친화환경, 연령통합, 위계적 선형모형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olidarity and age-friendly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and to suggest approaches that can increase the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youth, middle-age and older adults, each group consisting 294, 357 and 353. The data from SSK(Social Sciences Korea) were analyzed using HLM(Hierarchical Linear Modeling) with two-level approach to reflect the nested complexion of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level-1 predictor, youth group showed higher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with higher monthly income, higher affectional solidarity, and more age-friendly the physical environment was. Middle-age group showed higher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with lower associational solidarity, higher affectional solidarity, and more age-friendly the physical environment was. Lastly, older adults group showed higher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with lower self-rated health status, lower contact with family members and higher functional solidarity. For level-2 predictor, middle-age group showed higher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when the cities have higher percentage of older adults. This study discussed abou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family relation and making age-friendly cities to promote the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Key words: family solidarity, age-friendly environment, age integration,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I. 서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자리잡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왔고 많은 사회에서 ‘연령통합(age integration)’을 그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미국정부는 이미 22년 전인 1995년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에서 처음 연령통합을 노인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설정하였다.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고령화된 사회로 인해 일어날 사회적 및 정책적 변화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Hodge 2004).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정책(policies for the elderly)이 아니라 효과적인 고령화 정책(aging policy)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화는 인생과정의 한 부분으로 고령자에게 보장을 주는 정책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과 손자들의 삶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Zaino 2005). 또한 이 고령화 정책은 연령통합적이며 지역사회 중심적이고 모든 세대가 권리, 책임,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Carpenter 2004).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연령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유엔에서는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선포하였는데 그 기본적인 이념을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는 사회’의 구현에 두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간의 통합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사회는 정책과 계획을 포함한 사회구조 및 기능을 모든 세대의 요구와 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이자 세대가 서로에게 투자하고 상호주의와 공정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공유하는 사회이다(Zaidi et al. 2010).

Uhlenberg(2000b)는 연령통합사회의 중요성을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인생과정의 유연성 증가이다. 기존의 연령 분절적 시각은 개인의 삶을 과정별로 나누어 청소년은 교육, 중년층은 근로, 노년층은 여가와 같이 연령에 따른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Kohli 1988). 반대로 연령통합적 시각에서는 연령이 사회참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 모든 세대가 교육, 일, 여가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연령 간의 차별이 낮아지고 공동체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정순돌 외 2016b). 두 번째는 연령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체계화하는 과정인 연령주의의 감소이다(정순돌·정주희 2014). 연령주의는 세대교류가 적은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통합적인 사회에서는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이 적게 나타난다. 세 번째는 생산적인 노화의 증가로 연령통합사회에서는 고령자가 일, 자원봉사, 부양과 같이 생산적인 역할을 자유롭게 맡는다. 생산적 활동은 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함께 교류하는 아동, 청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모든 연령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마지막은 시민성 증진에 관한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는 청년과 노인의 연대가 구축되어 국회에서도 각 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 등 세대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연령통합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연령 간 분열을 감소시키고 세대 간 화합을 증진시켜 시민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고령자는 활력과 건강이 감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다(Findlay 2003). 그렇기 때문에 연령통합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참여를 이끄는 것은 취약계층인 고령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연령통합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다른 세대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화한다는 것은 삶의 연속성 중 한 부분으로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하는 생애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를 언젠가 자신이 거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세대들도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사회적 통합성을 보이는 개인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나, 사망률,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의 연령통합성을 증가시키고 사회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유익하다(Berkman & Glass 2000).

연령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령통합

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통합을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도 각자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면 연령통합사회는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연령통합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적 차원에서 연령통합인식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내의 연령통합 관련 연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탐색적 연구이다. 선행연구 중 정순돌 외(2015a)의 연구는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최혜지 외(2015)의 연구는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의 유용성을 고찰하며 연령통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연령통합과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중 정순돌 외(2016c)의 연구는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순돌 외(2016b)의 연구는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연령집단별로 분류해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지역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개인의 인식은 개인적인 특성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이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사용하여 연령집단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인식 요인은 가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결속도와 개인이 지각하는 지역사회의 고령친화환경 정도로 개인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지역요인 변수는 지역사회의 고령인구비율과 지역크기로 연구대상자의 거주환경에 대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청년, 중년, 노년으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미래에 노인이 될 집단과 이미 노인이 된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여 각 집단의 결핍을 파악하고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단계별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결속도와 고령친화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연령통합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을 세우는 데에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연령통합인식의 개념 정의

연령통합(age integration)은 Riley & Riley(1994)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서, 개인의 사회제도 진출·입에 연령장벽이 없고 모든 연령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경호 2000). 이는 청년기에는 교육을 받고, 중년기에는 일을 하며, 노년기에는 여가를 즐기는 생애주기 모델의 한계를 보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정순돌 2014). 생애주기 모델에서는 사회 내에서 각 연령층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령집단 간에 의미 있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연령통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교육, 근로, 여가에 참여하는 데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생애주기에 속해 있는 것이 장벽이 되지 않아 개인이 삶의 어떤 시기에 있을지라도 원하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통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노인일지라도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Uhlenberg 2000a). 결론적으로 연령통합사회는 연령과 무관한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정경희 2004). Kaplan et al.(2017)은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연령통합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령통합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먼저 조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Riley(1998)는 연령통합을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의 두 가지 요소로 설명했다. 연령유연성은 사회제도가 교육 또는 근로 참여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뜻하며,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여 연령집단 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령유연성의 사회에서는 대학교에서 노인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고, 연령다양성의 사회에서는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타 세대와 교류하고 각 세대만이 갖는 고유한 경험과 지식을 다른 세대에 전이시킨다(정순돌 외 2016a). 따라서 연령유연성은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를 증가시키며 연령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세대갈등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정순돌 외 2016c).

2.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이론 속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관점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상황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Swick & Williams 2006).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은 개인적인 특성 외에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정순돌 외 2016a; Miley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을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결속도와 고령친화환경으로 선택했다. 가족은 개인과 개인이 맞닿아 있는 가장 일차적인 환경으로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가치를 배우고 문화를 전달받으며 사회관계를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Mitts 2003).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신완수·신귀순 2002). 특히 노인에게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속감, 욕구충족, 안정감을 주는 환경으로서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노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조병은 1990).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결속도가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독립변수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개인요인은 개인이 지각하는 지역사회 고령친화도이다. 거주환경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인은 이로 인해 소속감을 느끼거나 개인의 행위 및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오찬옥 외 2014). 따라서 개인이 거주지역의 고령친화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다양한 연령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 즉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여 고령친화환경을 선택했다.

1) 개인수준: 가족결속도 인식

결속도는 Durkheim의 사회이론에서 유래되어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의존, 상호보완, 정서적 유대감, 규범과 가치의 공유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박옥임 외 1994). 이와 같은 맥락에서 Olson(1983)은 가족결속도를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라고 정의하였고, Bengtson & Schrader(1982)은 부모-자녀 결속도를 6가지 영역으로 설명한다. 구조적 결속도는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접촉적 결속도는 연락 빈도를, 애정적 결속도는 친밀함의 정도를, 가치관 일치적 결속도는 가치관의 유사성을, 기능적 결속도는 자원의 교환과 도움 정도를, 그리고 규범적 결속도는 내재화된 규범으로 설명한다.

가족 내에서 형성된 문화와 가족결속도는 개인의 인식으로 자리잡아 일상생활 내에서 다른 사회구성원과 교류하고 소통할 때 표출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돈독한 가족관계를 가진 개인은 다른 연령층에 대한 편견이 낮다(Newman et al. 1997). 그리고 가족 내에서 세대교류의 경험은 다른 연령집단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인식과 태도, 타 연령집단과의 유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Caspi 1984). 이렇게 가족결속도로 인해 생겨난 개인의 인식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러 학자들은 연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을 지속적인 접촉, 복합적인 감성적 유대감, 공유된 정체성 및 조망 수용이라고 하였는데 Hagestad & Uhlenberg(2005)는 이것이 모두 가족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가족결속도는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가족결속도를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선택하였다. 임정숙·정순들(2017)의 연구에서 가족결속도와 연령통합인식 간 관계를 살펴본 것 외에는 이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본 연구에서 이를 활용해 보고자 한다.

2) 개인수준: 고령친화환경 인식

고령친화환경(age-friendly environment)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노인, 어린이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게 거주하기 편리한

환경을 뜻한다. 이는 노년기 생활에 친화적이고 고령자들이 연령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시정책과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노인들의 능동적 사회참여와 활기찬 노년을 가능하게 한다(정경희 2010; 정순돌 외 2015c).

WHO(2007)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노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갖게 되는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라 일컬으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guide)’를 발간하여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살펴보았다(장영은·김신열 2014). 주로 물리적으로 노인과 모든 연령이 살기에 편안한 환경, 사회적으로도 노인을 존경하고 교류하는 환경, 사회적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고령친화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의 시민을 수용하고 사회가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정경희 2010).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고령친화환경의 조성 과 삶의 만족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시사하며 지역사회를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허준수 2014). Mcpherson(1994)은 적절한 사회참여는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보이며 그 유용함을 강조했고, 장영은·김신열(2014)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고용과 고령자원 활용이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보여 노인의 사회문화적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순돌·김미리(2017)의 연구에서는 고령친화환경이 노인 외에도 청년과 중년의 삶의 질 또한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철·박영란(2016)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참여,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녹지공원에의 접근 편의성이 장년층, 전기노인, 후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모두 향상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친화환경이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고령친화환경과 연령통합인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 중 Beard & Montawi(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령친화환경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거주자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통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Biggs & Haapala(2015)의 연구는 고령친화도

시에서는 고령자들이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세대와의 사회교류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 유대감을 증진시켜 연령다양성을 강화하고 연령통합인식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두 연구 모두 고령친화환경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 환경, 서비스 환경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령친화환경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각 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알아보아 영역별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3) 개인수준: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국내와 국외 모두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Riley(1998)는 개인의 교육, 사회참여, 일을 끝냈고, Uhlenberg(2000b)는 차별경험, Foner(2000)은 가족 관련 요인, 그리고 Ravanera & Fernando(2003)는 지역사회환경과 연령다양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 외에 연령통합과 같이 언급되는 연령주의(agei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성별, 건강, 경제수준, 지역요인 등이 있다(김태현 외 1999; 김윤정 외 2004; Hawkins 1996).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 월평균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수를 선정하여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지역수준: 지역사회의 고령인구비율과 지역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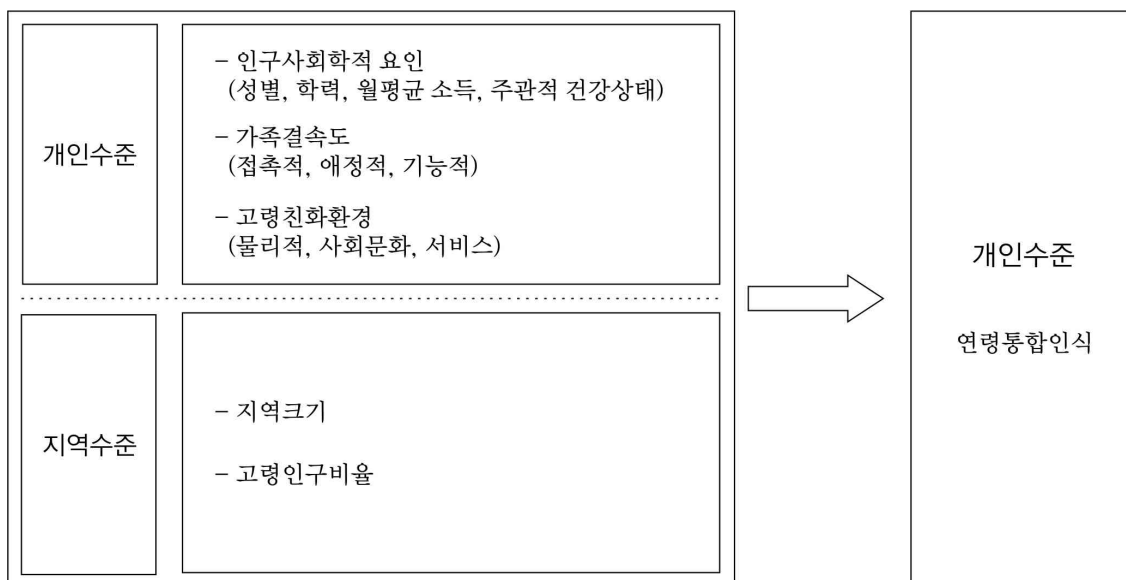
실제로 개인은 지역사회에 속하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령통합인식은 어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냐에 따라 인식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관련 변수와 연령통합인식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준으로 고령인구비율과 지역의 크기를 선정하였다. 고령인구비율은 연령통합사회가 결국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므로 이러한 상황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지역수준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령통합인식은 결국 노인과 노인이 아닌 세대 간의 결속을 의미하므로 노인세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의 크기는 대도시와 읍·면·동의 물리적 환경이 달라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어 선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를 통해 가족결속도와 고령친화환경이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연구대상자가 지역수준에 내포(nested)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한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수준 모형으로 하위수준인 개인수준(1-수준)과 상위수준인 지역수준(2-수준)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인수준 변수로는 가족결속도와 고령친화환경, 그리고 지역수준 변수로는 지역크기와 고령인구비율을 사용했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진행된 SSK(Social Sciences Korea) 사업단의 연구 데이터 일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진행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30-14). 자료수집은 사전교육을 받고 훈련된 면접원이 가구방문을 하여 1:1 개별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와 8개의 도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2016년 11월 기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이다. 15개 시·도는 각각 인구수를 비례하여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연령에 따른 세대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과 연령대별 분석의 유의성 확보를 위해 20~44세 294명, 45~64세 357명, 65세 이상 35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령대를 나누는 기준은 관련법과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과 같이 45세 이상을 중년층으로 분류하였고 노인복지법의 노인연령 기준 65세를 기준으로 노년층을 분류하였다.

3. 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연령통합인식

연령통합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정순돌 외(2015b)가 개발한 연령통합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구성원들이 연령통합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 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 가족 내의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의 다섯 가지의 하위변수로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하지만 연령통합은 Riley & Riley (2000)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이 핵심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2개의 하위척도만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연령다양성을 의미하는 ‘가족 내의 세대교류’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통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조부모, 자녀, 손자녀 세대가 함께 어울리

며 시간을 보낸다’, ‘연령통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노인은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지 않는다’와 같은 인식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연령유연성을 의미하는 ‘연령무관한 사회참여 기회’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통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노년기에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연령통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노년기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등과 같은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하위척도 모두 전혀 동의 안 함(1점)부터 매우 동의함(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통합인식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0$ 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가족결속도 인식

가족결속도 척도는 Cho(1988)가 Bengston & Schrader(1982)의 가족결속도 개념틀에 기초하여 만든 원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병은(1990)이 번역한 6개의 가족결속도 하위요인 중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3개의 하위요인만 선택하였다. 먼저 구조적 결속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유사하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치관 결속도와 규범적 결속도 역시 애정적 결속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접촉적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3개를 추출하여 사용했다. 접촉적 결속도는 총 2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가족을 보셨습니까?’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가족과 전화하셨습니까?’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1-2번 정도(1점)에서 거의 매일(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접촉적 결속도를 나타낸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7$ 로 나타났다.

애정적 결속도는 총 7문항으로 ‘가족들이 귀하를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의 인생사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등과 같이 서로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그리고 성인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응답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7$ 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적 결속도는 가족구성원끼리 재정적으로 또는 서비스적으로 주고받는 도움의 빈도를 측정한다. 응답자가 가족에게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부분과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분을 합쳐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는 도움으로 결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아플 때 보살펴준다.’, ‘집안일을 도와준다.’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거의 하지 않음(1점), 때때로 함(2점), 매우 자주함(3점) 등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4$ 로 나타났다.

(2) 고령친화환경 인식

고령친화환경 척도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WHO 2007)의 항목을 활용하여 점검지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인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 환경’, ‘서비스 환경’의 세 가지 하위변수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역의 고령친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 척도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이 잘 되어 있다.’와 같이 조사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고령자에게 친화적인지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735$ 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환경’ 척도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노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와 같이 연구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의 존경 및 사회통합 여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과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많다.’와 같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803$ 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환경’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 이용이 편리하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노인보호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와 같이 지역의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편리성을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 5문항으로 신뢰도 Cronbach's $\alpha=.770$ 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변수

지역변수는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응답한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크기와 고령 인구비율(%)을 사용했다. 지역크기는 읍·면지역은 1, 중소도시는 2, 대도시는 3으로 코딩하였다. 읍면지역에 사용된 지역은 경기 용인,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충남 읍·면, 전북 읍·면, 전남 읍·면, 경북 읍·면, 경남 읍·면, 중·소도시에 사용된 지역은 경기 수원, 경기 고양,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그리고 대도시에 사용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다. 읍·면 지역 8곳, 중·소도시 9곳, 대도시 7곳이 사용되어 총 24개의 지역을 사용하였다. 고령인구비율은 통계청의 e-지방지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령인구비율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수 대 총인구수 비율로 해석된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0=여자, 1=남자), 학력(1=무학, 2=초등 졸업, 3=중등 졸업, 4=고등 졸업, 5=대학교 이상), 월평균 소득(1=0~99만원, 2=100~199만원, 3=200~299만원, 4=300~399만원, 5=400~499만원, 6=500만원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1=매우 나쁘다, 2=나쁘다, 3=보통, 4=좋다, 5=매우 좋다)를 포함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가중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SPSS 18.0과 HLM 7.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표본조사로 조사된 표본 구성비율이 모집단 구성비율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비례해서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했다. 가중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방법에 따라 적용했으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만 18세 이상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omega(k,s,h) = \frac{n(k,s,h)}{N(k,s,h)}$$

여기서 k 는 연령, s 는 성, 그리고 h 는 지역을 나타낸다. $w(k,s,h)$ 는 (k,s,h) 셀의 가중치를, $N(k,s,h)$ 는 (k,s,h) 셀의 모집단 수를, $n(k,s,h)$ 는 (k,s,h) 셀의 표본 수를 뜻한다.

가중치가 적용된 자료를 사용해 SPSS 19.0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수준 변수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SPSS 18.0을 사용해 mdm 파일을 만들고 이를 HLM 7.0에 적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기초모형 단계로 종속변수만 투입되어 종속변수인 연령통합인식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연령통합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기초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개인수준 (Level-1)} : Y_{ij} = \beta_{0j} + r_{ij}$$

$$\text{지역수준 (Level-2)} : \beta_{0j} = \gamma_{00} + u_{0j}$$

$$(i=\text{개인}, j=\text{지역})$$

Y_{ij} 는 종속변수인 연령통합인식으로, 지역 j 에 있는 조사대상자 i 의 연령통합인식은 그가 속한 j 지역의 평균 연령통합인식(β_{0j})과 개인효과(r_{ij})를 더한 값이다. j 지역의 평균 연령통합인식(β_{0j})은 모든 조사대상의 전체 평균 연령통합인식(γ_{00})과 각 지역효과(u_{0j})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모형에서는 연령통합인식을 설명하는 총 변량에서 지역변수가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ICC)을 파악하고 위계선형모형을 본 자료에 사용해도 되는지 검증하게 된다(정익중 외 2010).

$$ICC = \frac{\text{지역분산}}{\text{총분산}} = \frac{\text{지역분산}}{(\text{지역분산} + \text{개인분산})}$$

두 번째는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으로 해당 모형을 통해 개인수준 변수들이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설정하였고 개인수준 변수는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하여 투입하였다. 전체평균중심화는 그룹평균중심화에 비해 지역수준 변수의 차이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수준의 영향력을 보다 확실히 살펴보기 위해 전체평균중심화를 선택했다(Ulmer & Johnson 2004). 무선효과들의 공분산은 무제약추정으로 진행했다.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개인수준(Level-1): } Y_{ij} = & \beta_{0j} + \beta_{1j}(\text{성별}_{ij}) + \beta_{2j}(\text{학력}_{ij}) + \beta_{3j}(\text{월평균 소득}_{ij}) + \\ & \beta_{4j}(\text{주관적 건강상태}_{ij}) + \beta_{5j}(\text{접촉적 가족결속도}_{ij}) + \\ & \beta_{6j}(\text{애정적 가족결속도}_{ij}) + \beta_{7j}(\text{기능적 가족결속도}_{ij}) + \\ & \beta_{8j}(\text{물리적 고령친화환경}_{ij}) + \beta_{9j}(\text{사회문화 고령친화환경}_{ij}) + \\ & \beta_{10j}(\text{서비스 고령친화환경}_{ij}) + r_{ij}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지역수준(Level-2): } \beta_{0j} &= \Upsilon_{00} + u_{0j} \\ \beta_{1j} &= \Upsilon_{10} \dots \beta_{4j} = \Upsilon_{40} \\ \beta_{5j} &= \Upsilon_{50} + u_{5j} \dots \beta_{10j} = \Upsilon_{100} + u_{10j} \\ & (i=\text{개인}, j=\text{지역}) \end{aligned}$$

세 번째는 조건모형으로 지역수준 요인인 지역크기와 고령인구비율이 투입되어 지역수준 변수와 개인수준 변수가 함께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개인수준 변수인 가족결속도의 하위변수와 고령친화환경의 하위변수는 그룹평균중심화(group mean centering) 하고 지역수준 변수인 지역크기와 고령인구비율은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 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중심화 방법에 따라 고정효과 회귀계수의 의미와 추정 값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1-수준 설명변수를 집단평균중심화하고 2-수준 설명변수를 전체평균중심화 하는 방법이 회귀선의 신뢰도를 가장 높게 하고 1-수준 오차를 가장 작게 하기 때문에 해당 중심화 방법을 선택했다(강상진 2016). 개인변수 중 성별, 학력, 월평균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고정효과를 설정하고 가족결속도 인식과 고령친화환경 인식의 하위변수에는 무선효과를 적용했다. 조건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1):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_{ij}) + \beta_{2j}(\text{학력}_{ij}) + \beta_{3j}(\text{월평균 소득}_{ij}) +$
 $\beta_{4j}(\text{주관적 건강상태}_{ij}) + \beta_{5j}(\text{접촉적 가족결속도}_{ij}) +$
 $\beta_{6j}(\text{애정적 가족결속도}_{ij}) + \beta_{7j}(\text{기능적 가족결속도}_{ij}) +$
 $\beta_{8j}(\text{물리적 고령친화환경}_{ij}) + \beta_{9j}(\text{사회문화 고령친화환경}_{ij}) +$
 $\beta_{10j}(\text{서비스 고령친화환경}_{ij}) + r_{ij}$

지역수준(Level-2):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지역크기}_j) + \gamma_{02}(\text{고령인구비율}_j) + u_{0j}$

$$\beta_{1j} = \gamma_{10}$$

$$\beta_{1j} = \gamma_{10} \dots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 u_{5j} \dots \beta_{10j} = \gamma_{100} + u_{10j}$$

(i =개인, j =지역)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004명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정리하였다. 20~44세의 청년층은 294명, 45~64세의 중년층은 357명,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35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청년층의 경우 34.18세($SD=7.07$), 중년층은 53.21세($SD=5.16$), 그리고 노년층은 69.75세($SD=4.48$)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청년층의 99.0%와 중년층의 91.9%가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년층은 58.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어 연령이 감소할수록 학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또한 청년층에서는 86.8%, 그리고 중년층에서는 80.7%가 300만원 이상으로 과반수가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지만 노년층에서는 84.4%가 3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도 앞의 변수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청년층과 중년층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에 각각 58.8%, 60.8%가 응답해 절반이 넘는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노년층은 절반가량인 49.3%가 ‘보통’, 21.8%는 ‘나쁘다’라고

답하였다. 지역크기는 3점 기준 평균점수가 청년층은 2.27($SD=0.80$), 중년층은 2.24($SD=0.80$), 노년층은 2.18($SD=0.80$)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읍·면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평균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청년층 거주 지역은 12.89%($SD=2.70$), 중년층은 13.21%($SD=2.75$), 노년층은 13.66%($SD=3.06$)로 노년층이 사는 지역일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4$)

		20-44세($n=294$)		45-64세($n=357$)		65세 이상($n=353$)	
		N	%	N	%	N	%
연령	빈도 (평균)	294 (34.18)	29.3	357 (53.21)	35.6	353 (69.75)	35.2
성별	여성	140	47.6	180	50.4	183	51.8
	남성	154	52.4	177	49.6	170	48.2
학력	무학	0	0	0	0	19	5.4
	초등졸업	0	0	11	3.1	99	28.0
	중등졸업	3	1.0	18	5.0	89	25.2
	고등졸업	70	23.8	182	51.0	127	36.0
	대학교 이상	221	75.2	146	40.9	19	5.4
월평균 소득	0-99 만원	2	.7	4	1.1	77	21.8
	100-199 만원	10	3.4	17	4.8	159	45.0
	200-299 만원	27	9.2	48	13.4	62	17.6
	300-399 만원	81	27.6	87	24.4	35	9.9
	400-499 만원	86	29.3	99	27.7	16	4.5
	500 만원 이상	88	29.9	102	28.6	4	1.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1	.3	3	.8	4	1.1
	나쁘다	14	4.8	14	3.9	77	21.8
	보통	37	12.6	93	26.1	174	49.3
	좋다	173	58.8	217	60.8	94	26.6
	매우 좋다	69	23.5	30	8.4	4	1.1
	평균(표준편차)	4.00(0.76)		3.72(0.71)		3.05(0.76)	
지역크기	읍면지역	64	21.8	81	22.7	87	24.6
	중소도시	88	29.9	110	30.8	115	32.6
	대도시	142	48.3	166	46.5	151	42.8
	평균(표준편차)	2.27(0.80)		2.24(0.80)		2.18(0.80)	
고령인구비율	평균(표준편차)	12.89(2.70)		13.21(2.75)		13.66(3.06)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2>에 종속변수인 연령통합인식과 독립변수 중 개인수준 변수인 지각된 가족결속도와 지각된 고령친화환경의 특성을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F -test를 실시하여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F -test 결과 연령통합인식, 가족결속도 변수와 고령친화환경 중 물리적 환경은 연령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회문화 고령친화환경과 서비스 고령친화환경은 연령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cheffe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연령통합인식의 경우 청년층 평균 3.41($SD=.494$), 중년층 평균 3.29($SD=.525$), 노년층 평균 3.19($SD=.568$)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적 가족결속도는 청년층 평균 4.15($SD=.920$), 중년층 평균 3.91($SD=.994$), 노년층 평균 3.43($SD=.84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접촉적 가족결속도 점수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애정적 가족결속도는 청년층은 평균 3.84($SD=.497$), 중년층은 3.83($SD=.476$), 노년층은 3.71($SD=.472$)로 노년층이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기능적 가족결속도 역시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순서대로 평균 2.00($SD=.338$), 2.06($SD=.377$), 1.85($SD=.372$)를 가지며 노년층이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물리적 고령친화환경은 F -test에서는 유의했지만 Scheffe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사회문화 고령친화환경과 서비스 고령친화환경도 연령집단별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연령집단별 주요변수 특성

		20-44세(a)		45-64세(b)		65세 이상(c)		Scheffe	F
		M	SD	M	SD	M	SD		
연령통합인식		3.41	.494	3.29	.525	3.19	.568	a>b>c	14.805***
가족결속도	접촉적	4.15	.920	3.91	.994	3.43	.841	a>b>c	52.135***
	애정적	3.84	.497	3.83	.476	3.71	.472	a,b>c	7.799***
	기능적	2.00	.338	2.06	.377	1.85	.372	a,b>c	31.055***
고령친화환경	물리적	3.92	.504	3.91	.456	3.83	.451		3.304*
	사회문화	3.33	.576	3.34	.567	3.27	.558		1.466
	서비스	3.71	.543	3.79	.472	3.75	.461		1.924

3.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1) 기초모형 (Base Model)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의 첫 단계는 기초모형으로 자료의 기초정보를 구하고 종속변수의 분포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어느 정도 분산을 갖는지 파악한다(강상진 2016). 기초모형에서는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오직 종속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하게 된다(문경주 외 2015).

본 연구의 기초모형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청년층($\chi^2=79.24$, $p<.001$), 중년층($\chi^2=82.74$, $p<.001$), 노년층($\chi^2=113.13$, $p<.001$) 세 연령집단의 지역효과(u_{0j})가 모두 유의미하다. 그러므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의 연령통합인식은 모두 분석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본 자료에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연령통합인식의 전체 분포에서 지역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인 *ICC*를 계산한 결과 청년층은 0.153, 중년층은 0.182, 노년층은 0.240이 나왔다. 즉, 연령통합인식의 총분산 중 청년층의 경우 15.3%가, 중년층의 경우 18.2%가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 24.0%가 지역 간 차이의 영향에 의해 설명된다. *ICC*가 10% 이상일 경우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해 분석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다(Heck & Thomas 2009).

<표 3> 연령집단별 연령통합인식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1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고정효과	β	<i>SE</i>	β	<i>SE</i>	β	<i>SE</i>
절편	3.375***	.050	3.294***	.055	3.177***	.064
무선효과	<i>SD</i>	χ^2	<i>SD</i>	χ^2	<i>SD</i>	χ^2
지역수준	.193	79.24***	.229	82.74***	.285	113.13***
개인수준	.453		.486		.508	
<i>ICC</i>	.15294		.18187		.24010	

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 (Unconditional Slope Model)

기초모형의 다음 단계인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 분석은 개인수준 변수들이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표 4>의 모형 2에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에 대한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청년층의 경우 애정적 가족결속도($\beta=3.290$, $p<.001$)가 높을수록, 거주지의 물리적 고령친화환경($\beta=.208$, $p<.01$)이 잘 조성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서비스 고령친화환경($\beta=-.172$, $p<.05$)은 낮다고 판단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인다. 중년층의 경우에는 접촉적 가족결속도($\beta=-.127$, $p<.001$)가 낮고, 애정적 가족결속도($\beta=.302$, $p<.001$)가 높고, 거주지의 물리적 고령친화환경($\beta=.253$, $p<.001$)을 높게 평가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주관적 건강상태($\beta=-.117$, $p<.001$)를 낮게 평가할수록, 접촉적 가족결속도($\beta=-.061$, $p<.05$)가 낮을수록 그리고 기능적 가족결속도($\beta=.368$, $p<.01$)가 높을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인다.

연령집단별로 결과를 비교하면 청년층과 중년층, 그리고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중복되는 영향요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청년층과 중년층은 애정적 가족결속도와 물리적 고령친화환경이 연령통합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년층과 노년층은 접촉적 가족결속도가 연령통합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 각 연령집단에서만 나타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청년층에서는 서비스 고령친화환경이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연령통합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건모형 (Conditional Model)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이 함께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단계인 조건모형을 진행하고 <표 4>의 모형 3에 정리하였다. <표 4>의 모형 3을 보면 지역변수는 중년층의 경우에만 거주지역의 고령인구비율($\beta=.035$, $p<.05$)이 높아질수록 연령통합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무선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결과 중년층의 경우 서비스 고령친화환

경($\chi^2=44.87, p<.001$)이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20-44세 (N=294)				45-64세 (N=357)				65세 이상 (N=353)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고정효과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Level 1 개인변수												
절편	3.395***	.039	3.372***	.048	3.305***	.045	3.299***	.054	3.183***	.064	3.175***	.065
성별	.009	.038	.006	.040	.040	.058	.049	.060	-.016	.054	-.011	.054
학력	-.005	.061	-.032	.065	.022	.046	.007	.045	.032	.023	.038	.025
월평균 소득	.053*	.026	.058*	.024	.012	.019	.014	.020	.014	.037	.007	.038
주관적 건강상태	-.058	.037	-.052	.039	-.028	.042	-.034	.045	-.117***	.027	-.126***	.026
접촉적 가족결속도	.004	.034	.001	.038	-.127***	.032	-.127*	.037	-.061*	.026	-.071*	.028
애정적 가족결속도	.307***	.043	.323***	.044	.302***	.050	.252***	.038	.002	.078	-.046	.080
기능적 가족결속도	-.105	.062	-.122	.069	-.015	.085	-.004	.096	.368**	.112	.387**	.111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208**	.060	.223***	.061	.253***	.052	.243***	.059	.072	.093	.057	.095
사회문화 고령친화환경	.073	.051	.081	.053	.084	.072	.120	.067	.114	.059	.064	.053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172*	.062	-.169*	.065	-.077	.097	-.121	.095	.046	.074	.049	.080
Level 2 지역변수												
지역크기			.060	.054			.040	.039			-.020	.064
고령인구비율			.008	.015			.035*	.014			.007	.017
무선효과	SD	X ²	SD	X ²	SD	X ²	SD	X ²	SD	X ²	SD	X ²
절편	.129	24.03*	.221	90.01***	.183	26.09	.253	115.82***	.283	41.54**	.315	150.91***
접촉적 가족결속도	.109	16.99	.114	17.69	.092	20.34	.120	20.66	.082	16.94	.086	17.15
애정적 가족결속도	.099	6.69	.096	7.30	.152	14.46	.108	12.86	.242	23.60	.227	23.16
기능적 가족결속도	.069	17.08	.088	17.49	.278	15.00	.313	15.36	.322	30.82	.303	31.20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189	12.79	.158	12.97	.127	12.70	.160	12.94	.263	24.74	.294	25.37
사회문화 고령친화환경	.099	9.52	.106	9.76	.234	21.18	.190	21.89	.157	19.99	.115	19.15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171	10.46	.155	10.66	.363	41.52***	.349	44.87***	.147	17.23	.193	17.61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개인인식 수준(1-수준)과 지역수준(2-수준)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령통합인식을 높이고 연령통합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SK 사업단의 자료와 2016년 통계청 e-지방지표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총 1,004명의 조사대상자를 20-44세 청년층, 45~64세 중년층, 65세 이상 노년층 세 연령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연령층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청년층은 월평균 소득이 높고, 가족과 애정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고령친화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서비스 환경은 고령친화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중년층은 가족과 접촉을 적게 할수록, 가족과 애정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고령친화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노년층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느낄수록, 가족과 접촉을 적게 할수록, 그리고 가족과 서로 도움을 많이 교환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지역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고령인구비율로 중년층은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곳에 거주할수록 높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다.

가족결속도 하위변수에서 접촉적, 애정적, 기능적 가족결속도 모두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선 접촉적 가족결속도는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연령통합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접촉적 가족결속도는 가족교류의 양적인 측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가족과의 잦은 접촉이 반드시 좋은 가족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접촉적 가족결속도와 높은 갈등을 동시에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Silverstein & Bengtson 1997; Bengtson et al. 2002). 선행연구에서는 세대 간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어 가족 간에 잦은 연락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고 할 수 있다(Makides & Krause 1985). 이 점을 바탕으로 자녀와 부모는 잦은 접촉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거기서 비롯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른 세대집단에게 똑같이 적용해 낮은 연령통합인식을 보였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접촉적 가족결속도 평균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적 가족결속도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청년들이 아직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거나 본인의 가정을 꾸리지 않아 아직 접촉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요소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애정적 가족결속도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연령통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아직 가족 외에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맺는 관계가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오선영·송순(2012)의 연구는 부모와 정서적 친밀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과 인식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한정란(2003)의 연구는 조부모와 동거한 손자녀는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중년층 역시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족이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가족 내에서 높은 애정적 관계를 갖는 것이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도움을 측정하는 기능적 가족결속도는 노년층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부모는 지리적 근접함 또는 접촉의 빈도보다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갖는다고 한다(홍숙자 1992; 신효식 1993; 박옥임 외 1994; Shanas 1973). 이는 노인에게 있어 가족 간 교류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이 더욱 중요함을 나타낸다(정혜정 외 2000). 특히 자녀와 도움을 주고받는 것, 즉 높은 기능적 결속도는 노인의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원영희 1995; 김태현·김수정 1996). 청년층과 중년층은 애정적 가족결속도가 높을 때 가족관계의 질적인 면을 높게 평가했다면 노년층은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적 결속도가 높을 때 가족관계의 질적인 면을 높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연령집단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연령통합인식을 높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가족이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Foner 2000; Ravanera & Fernando 2003), 가족관계의 질적인 면을

높게 평가할 때 연령통합인식이 증가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통합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자원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관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성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력 또한 키워나갈 수 있다(정순돌 외 2016b).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모든 연령층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가족과의 접촉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히려 자원의 교환과 같은 기능적 접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증진도 대상의 연령별 속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애정적 결속도나 기능적 결속도의 어떤 측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지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령친화환경의 하위변수 중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은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연령통합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결국 노인에게 편리한 환경은 청년이나 중년층에게도 편리하기 때문에 고령친화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태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개발 및 조성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현재 물리적 측면의 고령친화적 환경은 WHO의 기준에 의하면,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시설, 주거시설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야 고령친화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연령통합인식을 높여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 환경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서비스 환경 역시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제로 사회문화 환경과 서비스 환경의 고령친화도가 중요하지 않아서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고령친화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서비스 환경 역시 중년층과 노년층의 관점에서 충분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친화환경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환경이 중년층보다 노년층의 연령다양성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조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활용하는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정순돌 외 2017). 또한 지역수준 변수 중 고령인구 비율만 중년층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년층은 거주지역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를 자신의 미래와 연관지어 연령통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직 노년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청년이나 이미 노년기에 있는 노인집단에게 고령인구비율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초를 두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결속도 척도는 주로 부모와 자녀 수준만 측정하고 있어 손자녀와 조부모와의 가족결속도는 고려되고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가족결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경우 조부모와의 결속도를, 노년층의 경우 손자녀와의 결속도를 별도로 측정해 다양한 가족구성원과의 결속도가 세대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여 환경요인을 가족변수와 지역사회변수로 한정하여 설정했다. 하지만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결속도와 고령친화환경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변수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고령친화환경을 측정할 때 조성 정도를 물어보는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고령친화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도, 사회문화 환경과 서비스 환경 같은 경우 개인이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성 정도 외에도 참여 정도에 대한 문항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HLM의 한계로 인하여 다집단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회귀계수의 단순 비교는 각 독립변수의 효과가 연령집단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다집단 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1판. 학지사.
- 김정호. 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5(1): 553-582.
- 김윤정·강인·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 김태현·김동배·김애순·김미혜·이영진.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1): 61-81.
- 김태현·김수정. 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10-129.
- 문경주·김수영·장수지. 2015. “다층분석에 의한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115-142.
- 박옥임·신효식·김은주. 1994.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및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5(2): 185-197.
- 신완수·신귀순. 2002.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 가족적응력과 가족결속력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23(2): 85-100.
- 신효식. 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찬옥·김수영·장수지. 2014.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 디자인 지표개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2): 30-39.
- 원영희. 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이상철·박영란. 2016.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집단별 비교 연구.” 《한국사회정책》 23(2). 173-200.

- 임정숙·정순돌. 2017.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세대와 중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8: 37-66.
- 장영은·김신열. 2014. “고령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이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8(3): 255-284.
-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5(1): 11-26.
- 정경희. 2010.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168: 102-112.
- 정순돌. 2014. “연령통합과 고령친화도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89-290.
- 정순돌·기지혜·최혜지. 2015a.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인식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8: 161-186.
- 정순돌·김미리. 2017.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2): 121-141.
- 정순돌·김주현·송아영·이혜원·주경희·장철준·최혜지·전혜상·정세미·이고은. 2016a. 《연령통합: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 1판. 공동체.
- 정순돌·이은진·기지혜·최혜지. 2015b.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330-404.
- 정순돌·전혜상·송아영. 2015c.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3): 29-46.
- 정순돌·정세미·이미우. 2017.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 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7(3): 5-35.
- 정순돌·정세미·이미우·임정숙. 2016b.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36(1): 261-285.
- 정순돌·정주희. 2014. “가족관련 요인이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세대별 차이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5: 149-170.
- 정순돌·정주희·김미리. 2016c.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정혜정·김태현·이동숙. 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49-70.
- 조병은. 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최혜지·박정화·권미리·정순돌. 2015. “고령사회 대안 패러다임으로써 연령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7(3): 107-124.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 181-194.
- 허준수. 2014.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64: 235-263.
- 홍숙자. 1992. “한국 거주노인과 재미교포 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ard, J.R. and B. Montawi. 2015. “Age and the Environment: The Global Movement towards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9(1): 5-11.
- Bengtson, V.L., R. Giarusso, J.B. Mabry, and M. Silverstein. 2000. “Solidarity, Conflict, and Ambivalence: Complementary or Competing Perspectives on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568-576.
- Bengtson, V.L. and S.S. Schrader. 1982. “Parent-Child Relation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2: 115-186.
- Berkman, L.F. and T. Glass. 2000.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ocial Epidemiology* 1: 137-173.
- Bloggs, S. and Haapala, I. 2015. “Age Friendly Environment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9(1): 1-3.
- Butts, C.T., R.M. Acton, J.R. Hipp, and N.N. Nagle. 2012. “Geographical Variability and Network Structure.” *Social Networks* 34(1): 82-100.
- Carpenter, M. 2004. “Executive Summary in Caucus Priority Issues Report: Westchester County Pre-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2004-2005 Mini-Series.”
<http://www.westchestergov.com/seniornews>
-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t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Cross- 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74-80.
- Cho, B.E. 1988.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ged Par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 Findlay, R.A. 2003. “Interventions to Reduce Social Isolation amongst Older

- People: Where Is the Evidence.” *Ageing & Society* 23(5): 647-658.
- Foner, A. 2000. “Age Integration or Age Conflict as Society Ages.” *The Gerontologist* 40(3): 272-276.
- Hagestad, G.O. and P. Uhlenberg. 2005. “The Social Separation of Old and Young: A Root of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43-360.
- Hawkins, M.J. 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79.
- Heck, R.H. and S.L. Thomas. 2015. *An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Techniques: MLM and SEM Approaches Using MPlus*(1st ed.). London: Routledge.
- Hodge, P. 2004. “Living Younger Longer: Baby Boomer Opportunities.” <http://www.whcoa.gov/about/policy/meetings/meetings/asp>
- Kaplan, M., M. Sanchez, and J. Hoffman. 2017. *Intergenerational Pathways to a Sustainable Society*(1st ed.).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Kohli, M. 1988. “Ageing as a Challenge for Sociological Theory.” *Ageing & Society* 8(4): 367-394.
- Makides, K. S. and N. Krause. 1985.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Mexican Americans: A Three-Generation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3): 390-392.
- McPherson, S.L. 1994. “The Development of Sport Expertise: Mapping the Tactical Domain.” *Quest* 46(2): 223-240.
- Miley K.K., M.W. O'Melia, and B.L. DuBois. 2012.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7th ed.). Boston: Pearson Allyn and Bacon.
- Mitts, N. 2003. “Documenting Contribu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the Well-Being of Families 2004.” *The Vienna NGO Committee on the Family* 13.
- Newman, S., R. Faux, and B. Larimer. 1997. “Children's Views on Aging: Their Attitudes and Values.” *The Gerontologist* 37(3): 412-417.
- Ravanerza, Z.R. and R. Fernando. 2003. “Integration at Mid-Life: An Analysis of the General Social Surveys on Time Use.” *PSC Discussion Paper Series* 17(9): 2-19.

- Riley, M.W. 1998. *The Hidden Age Revolution: Emergent Integration of All Ages*(1st ed.).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 Riley, M.W. and J.W. Riley Jr. 1994. "Age Integraion and the Live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34(1): 110-115.
- Riley, M.W. and J.W. Riley.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6-270.
- Shanas, E. 1973. "Family-Kin Networks and Ag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3: 505-511.
- Silverstein, M. and V.L. Bengtson.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429-460.
- Swick, K.J. and R.D. Williams. 2006. "An Analysis of Bronfenbrenner's Bio-Ecological Perspectiv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s: Implications for Working with Families Experiencing Stress." *Early Chlidhood Education Journal* 33(5): 371- 378.
- Uhlenberg, P. 2000a. "Integration of Old and Young." *The Gerontologist* 40(3): 276-279.
- Uhlenberg, P. 2000b.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261-266.
- Ulmer, J. and B. Johnson. 2004. "Sentencing in Context: A Multilevel Analysis." *Criminology* 42: 137-177.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 Zaidi, A., K. Asior, and A. Sidorenko. 2010.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Policy Challenges and Societal Responses*.
- Zaino, J. 2005. "Disparate Generations: Intergenerational Accord and Aging Policy-A Preliminary Data Review." *Journal of Pastoral Counselling* 40: 8-27.